

손님은 느는데 후원은 ‘뚝’...광주 1000원 밥집들 어저나

고물가·불경기에 한숨...천정부지 식자재비 부담

공익 위해 운영하는데...경기한파에 걱정도 커져

“낼 수 있는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이리다 인건비도 못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 19일 점심 무렵 찾은 광주 서구 양동시장 내 천원국시 양동점. 낮 12시까지 30분여 남았는데도 1000원 짜리 국수를 기다리는 번호표는 벌써 40개를 넘겼다.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식당 안에는 금세 손님으로 북적였다. 바깥에 마련된 의자 주변에도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몰렸다.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은 쌀쌀한 날씨 속 입김을 내뿜으면서도 돈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밝은 얼굴이었다.

광주서구시니어클럽이 서구와 함께 지역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취지로 운영하는 천원국시는 지난해 3월 양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 품암점까지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매일 평일 점심시간 100그릇에 한정해 1000원 짜리 국수를 팔고,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닥쳐온 고물가와 불경기에 식당 운영이 녹록치는 않다.

천원국시 식당은 평일 점심시간 100그릇 판매라는 운영 방침이 있다. 최대 매출 역시 월 200만 원선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출은 고스란히 인건비로 나간다. 마저도 매달 책정되는 인건비 400여 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옆친데 달친 격’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국수값 원가도 덩달아 폭등했다. 양동점 개점 당시 1000원 안팎이었던 국수 한 그릇의 원가는 이달 현재 2000원에 육박, 순매출 만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 당국의 예산과 일반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후원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 후원금은 양동점·품암점 개점 당시 각

각 1000만 원, 8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개인 후원은 급감했다.

김은성 서구시니어클럽 과장은 “지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려운 구석이 있다. 공익적 취지가 불경기 속에 꺾일까봐 걱정이 조금 된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은 계속 할 것이다. 원가를 조금이나마 절감하면서 좋은 재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 대인시장 내 1000원 백반집 ‘헤프는식당’도 사정은 비슷하다. 후원금과 후원품에 크게 의존해 운영되는 이곳 역시 고물가와 불경기 여파로 운영이 위태롭다.

과거에는 식료품을 후원하는 상자가 매일 5개씩 도착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기부받은 식자재 상자는 10개에 불과하다.

찾아오는 손님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80여 명 수준이었지만 이달 초부터는 하루 최대 130여 명이 몰리고 있다.

김윤경 헤프는식당 대표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식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식료품 등 후원 규모는 크게 줄었다”며 “불경기는 어쩔 수 없다. 모두가 힘든 것을 이해하는 만큼 나부터라도 조금 더 나서도



광주 동구 대인시장 헤프는식당에서 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

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023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생산,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

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김희연기자

“로드킬 막자”...두꺼비 지킴이 된 광양제철소·전남녹색연합



산란기 토종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해 생태터널 등 청소에 나선 광양제철소 더푸른환경에너지재능봉사단과 전남녹색연합. (사진=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더푸른환경에너지 재능봉사단과 전남녹색연합이 산란기를 맞아 이동

하는 토종 두꺼비가 도로 위에서 죽는 ‘로드킬’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산란기 맞은 두꺼비 로드킬 빈번 생태터널 청소해 원할 이용 도와

21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두꺼비 산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 비평저수지 일대에서 전남녹색연합과 ‘두꺼비 로드킬’ 방지를 위한 우수로 정비와 생태터널에 쌓인 퇴적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광양제철소 더푸른환경에너지 재능봉사단과 전남녹색연합, 광양시청, 지역민 등 봉사자 27여명이 두꺼비의 이동 경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산란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

두꺼비는 산란기가 다가오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 회귀 동물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접어드는 시기에는 산란지인 비평저수지와 서식지를 오간다.

이때 이동하는 두꺼비가 사전에 조성된 우

수로와 생태터널을 이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산란지로 갈 수 있으나 생태터널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도로 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나는 차량으로 인해 로드킬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먹이사슬 중간에 위치해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꺼비들의 로드킬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양제철소는 전남녹색연합과 두꺼비 로드킬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체 수 유지와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제철소 직원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뜻을 모아 두꺼비들이 생태터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과 짐게 등을 준비해 생태터널과 우수로에 쌓인 퇴적물들을 제거했다.

또 앞에서 깨어난 울렁이들이 저수지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갇혀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작업도 진행했다.

박성길 광양제철소 환경자원그룹장은 “생태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두꺼비 보호를 통해 친환경 녹색지구를 만들어가고자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란기를 맞이한 두꺼비들의 로드킬은 개체수 유지 건 강한 생태계 유지에 위협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양제철소와 함께 두꺼비들을 보호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더푸른환경에너지 재능봉사단은 2020년 2월 창단했다. 환경자원그룹, 에너지부 직원 등 47명이 활동 중이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미세먼지 환경개선과 에너지 진단,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철소 내 전문 분야 봉사자로 구성됐다.

매년 광양동 어두운 거리 및 골목길 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대문 앞 램프(반딧불) 설치 봉사활동,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 페어 아이스팩 수거, 세척, 건조, 나눔의 봉사활동, 진월발전협의회와 진월면 자투리 공터 수국 식재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닮은 인정 가득한 곳

자연으로의 귀

매실

산수유

오이